

꿈바당편지

토닥토닥, 봄이 있어 눈이 부신

봄비가 내립니다. 봄의 소리가 토닥토닥 詩가 되어 세상을 깨우고 있습니다. 정원 한 쪽에 있는 동백나무에서 동백꽃이 한 송이씩 툭 툭 떨어집니다. 그 옆으로 소담스럽게 핀 명자 꽃도, 겨우내 잠들어 있었던 수국의 연두색 새잎도 봄의 소리에 맞춰 더 활짝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줍게 꽃봉오리를 여는 목련 역시 토닥토닥 봄의 소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쳐서 더욱 깨끗한 하늘이 되자, 햇살이 빗금 치며 도서관 정원으로 내려오고, 그 햇살을 맞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정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책 나들이 온 가족들이 도서관 복도에서, 도서관 책방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는가 하면, 숲 속 놀이터와 숲 속 산책길에서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도서관의 높은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봄은 이렇게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도 찾아왔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단어입니다. 봄에만 허락된 가슴 뛰는 기억들이 오늘을 채우고 있어, 언제나 눈이 부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눈부신 봄을 맞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도 봄맞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마음에 살포시 내려주기 위한 따뜻한 햇살을 차곡차곡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독서회'가 만들어집니다. 기존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훨씬 탄탄해진 아이들이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더한층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인기 최고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성장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프로그램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으로 오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외면만큼 따뜻한내면을 가진 도서관이 되기 위해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리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김재진「토닥토닥」전문

봄비가 세상을 깨우듯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을 깨우겠습니다. 서로가 토닥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아름다운 詩를 짓겠습니다.

꿈바당의 책들이, 꿈바당의 봄꽃들이, 꿈바당의 바람이, 꿈바당의 정원이, 꿈바당의 숲길이 모두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토닥토닥.....이젠 괜찮을 거야.”

목련이 피기 시작하는 삼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양민숙 운영팀장

어제 읽은 책



새로운 수놓는 기억

장보영 작가

당신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인가요?

저는 네 살 때인데, 그나마도 사진처럼 단편적으로 떠오릅니다. 엄마에게 업혀 집 안을 내려다본 장면, 식탁에 이불을 둘러 만든 요새처럼 말이지요. 지나온 인생을 완전히 기억한다면 아무래도 행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망각 덕분에 우리는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만 3세 즈음부터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점이 좀 불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분명 모진 노동인데 이 작은 아기는 이걸 기억하지도 못할 테니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완벽하게 의존적입니다. 먹고 싸고 자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감정을 표현하거나 청결을 유지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요. 대단한 성취는 바라지도 않은 채 그저 아기가 생존하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무척 벅칩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호자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0-3세 시절은 앞으로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점 말이지요.

아이를 낳았던 날, 모든 인류가 어머니의 몸을 찢고 세상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 하는 모든 일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했습니다. 아기의 첫 배변, 첫 트림, 첫 방귀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지요. 앞으로 아이의 모든 처음을 지켜보며 내 미지의 과거로 여행하게 될 것일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걷고, 말문이 트이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은 곧 저의 과거이기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다정하면서도 다소 무심한 편이신데, 저를 사랑하시지만 보통은 방목하듯 기르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점이 좀 서운했지요.

그런데 아기를 키워보니 이 일은 애초에 무심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여야 하고, 아이가 배변을 하면 씻겨서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무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빨래를 하고 집을 치우는 의무까지 감당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보호자의 이런 헌신으로 자랐겠지요. 아이를 돌볼 때마다 어린 나를 돌보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가 아주 충실한 어머니였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되면서 안개 속 같던 기억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잊은 줄 알았던 영유아기의 장면이 이따금 떠오릅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이 기시감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아이의 모습에서 작았던 시절의 저를 봅니다.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나, 음악에 맞춰 멋대로 춤을 추는 나, 맛있는 음식에 욕심 부리는 나...

3세까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망각의 장막에 가려진 시간은 아이를 통해 매일 재현되고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꼭 자기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양육자가 된다면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지요. 어느 커다란 '지혜'가 인간을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것은 아닐까요? 어린 생명을 돌보면서 나의 생존을 도운 손길들에 감사하고, 나 역시 가치 있는 생명이었음을 상기하라는 뜻으로 말이지요.

어느 겨울, 여섯 살의 저는 슈퍼에서 삼립빵을 사서 따뜻하게 구워먹겠다고 무작정 가게 난로 위에 빵을 봉지채로 얹었던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비닐을 녹인다는 걸 모르고 저지른 것이지요. 빵의 포장지 녹아 난로에 들러붙고 결국 빵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덕택에 혼쭐이 나서 참 속상하고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된 지금, 아이는 실수하면서 배운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넓은 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가 충분히 배울 수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내 아이를 용납하며 여섯 살의 나를 함께 안아줍니다.

"괜찮아."

실은 내가 듣고 싶었던 이 말을 이제는 아이에게 마음껏 들려줍니다. 마음에 사는 어린 내가 함께 듣기를 바라면서요. 그럴 때마다 응어리졌던 감정이 아지랑이처럼 나른하게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공공 감춰온 상처나 실수에 빔을 비추는 말들.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말들로 기억을 새롭게 수놓아봅니다. 돌아보면 나와 아이가 함께 곱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서적 결핍이 있었다 해도 아이를 통해 과거의 나를 안아주고 화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놀랍도록 사랑해주는 맑은 눈망울을 매일 마주 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고되고 벅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라는 책을 쓰면서 '엄마됨'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다 그렇다'는 말로 생략되고 감춰진 엄마됨의 과업. 그 무게를 표현해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의 유익과 기쁨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이 글을 씁니다. 육아의 고단함과 축복, 그리고 이 양가감정 모두가 진실입니다. 바다에 경계를 놓아도 그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마음에서 넘실대는 감정들도 경계가 없이 뒤섞이며 공존하지요. 그 안에서 균형을 잡고 온 힘으로 삶을 지탱하는 모든 엄마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장보영 작가 소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화 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동화 <브로콜리 선데이스쿨>을 비롯한 어린이책을 썼고, 에세이 <내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를 출간했습니다.

밴드 싱잉앳츠에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도 하며, 제주의 여러 학교와 도서관에서 독서, 글쓰기, 책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추천도서

사랑이 훅!

저자: 진형민 글, 최민호 그림/
출판사: 창비/ 청구기호: 813 진94ㅅ



짜릿하고도 달콤하면서도 눈물나는 우리들의 진짜 사랑이야기!
이 책의 주인공들은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연애는 어른들의 연애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어린이 역시 사랑 때문에 가슴 설레고 이별 때문에 상처받는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이 혼자 끔찍 않아야 할 고민거리가 아니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일이라는 인식으로 이 동화는 시작됩니다. 작가는 어린이들이 겪을 법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애 감정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등장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연애에 눈뜨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박담과 김호태는 우정을 넘어서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오래전부터 김호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신지은은 짝사랑을 키워 가게 됩니다. 반장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 엄선정은 공부만 잘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이종수와 사귀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이 동화는 연애의 즐겁고 행복한 면뿐만 아니라 외롭고 슬픈 면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고 관계를 맺는 데 서툴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자랍니다. 연애 감정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 배울 뿐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도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열람실 담당 이지연 사서

춘희는 아기란다

저자: 변기자 글, 박종진 옮김, 정승각 그림/
사계절출판사/ 청구기호 813.8 변18ㅈ



오카야마현(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대거 이주한 지역) 바닷가 작은 마을, 도쿄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호기심 많은 10살 소녀 유미가 강아지 파르와 함께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바다는 아침햇살에 반짝이고 길가에는 들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서 언덕길 가의 초라한 집 한채 그리고 집 마당에서 아기 기저귀를 널고 있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와 유미는 '나의 살던 고향은' 동요를 통해서 서서히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고통 받은 '할머니와 43살 아기 춘희의 아픔이 드러납니다.

이 그림책은 한국·중국·일본의 그림책작가 12명이 평화를 주제로 책을 만드는 '한·중·일 공동기획 평화그림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책의 원작은 재일조선인 1세 고(故) 변기자(1940~2012) 작가가 쓴 <춘희라는 이름의 아기>입니다. 여기에 8년여 세월을 일본 현지 답사와 취재에 이어 온갖 그림 기법과 채색 기법을 실험하여 장면 장면 풀어낸 정승각 그림책 작가의 그림이 더해졌습니다. 작가는 젓가락 한 쪽을 뜯어 물에 갠 숯가루를 찍어 무심한 듯 쓱쓱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선들을 통해 모두 다 이해할 순 없지만 느껴지는 어렴풋한 아픔과 이미지들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올해는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의 해입니다. 100년여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겪은 그분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 어렴풋하게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로 인해 평화를 위한 한걸음을 뚝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열람실 담당 조경림 사서

3월 특별 프로그램



2019년 꿈바당 프로그램의 주제는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입니다.

'나'의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가 만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곧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꿈바당에서 만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책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의 역사에 고운 한줄 씌어 지길 바랍니다.

글이 살아나는 문학놀이

'꼬마작가의 연필' / '꼬마작가의 노트'

3월 ~ 6월 / 매주 금요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한 뒤 관련된 창작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 답하며 자존감을 키워 나가도록 돕는 문학놀이 프로그램입니다.



꿈이 살아나는 창의놀이

'나도 만화가, 너도 만화가'

3월 ~ 6월 / 매주 토요일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만화로 표현하면서 몰입하는 즐거움을 배웁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콘티 북을 만들고, 또래 친구들이 서로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만화의 기법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들어주고,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갑니다.

몸이 살아나는 생태놀이

'길 따라 숲 따라'

3월 ~ 6월 / 매주 토요일



도서관 안과 밖을 오가며 자연을 몸으로 배웁니다. 도서관 정원의 나무, 풀, 곤충 등과 함께 생태놀이를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갑니다.

'열려라 그림책'

3월 ~ 6월 / 매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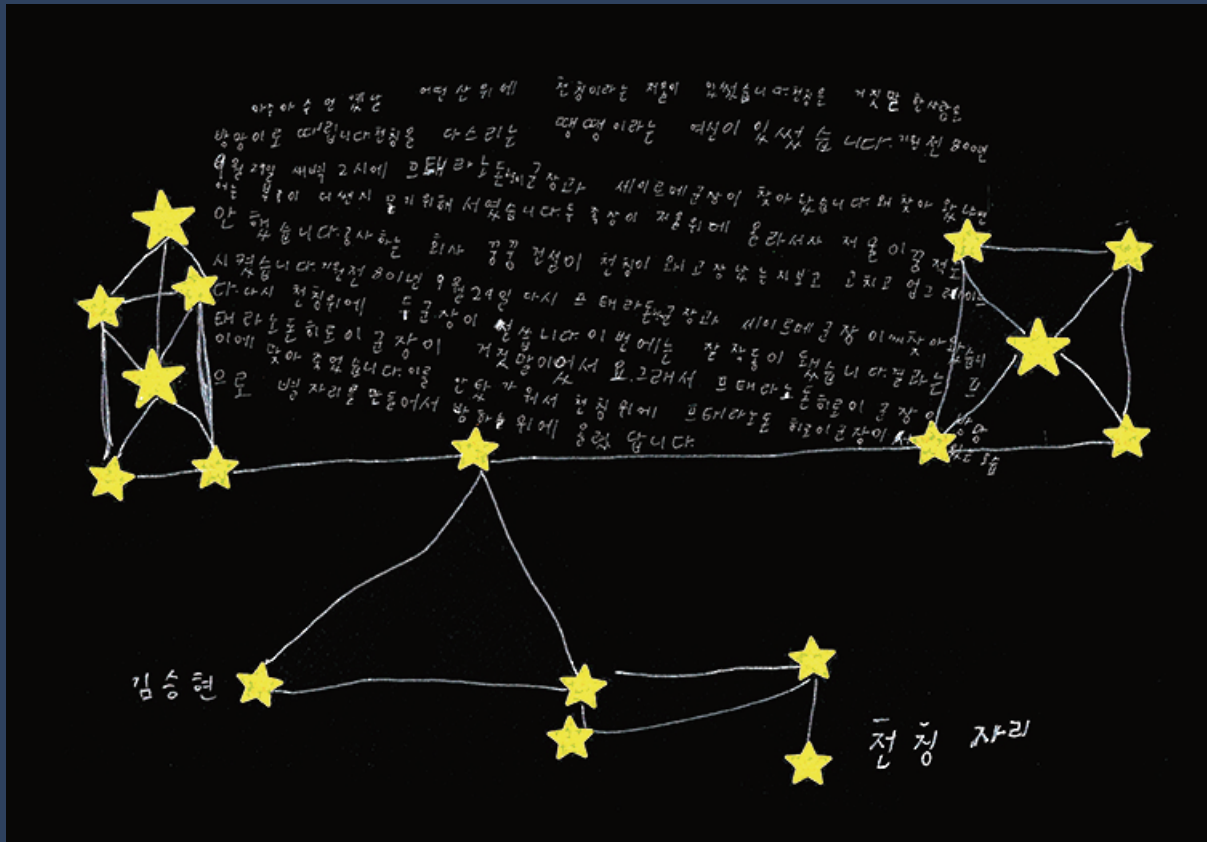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보호자와 함께 독후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아이는 어른에게 서로 배움이 싹트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삼일절	2 열려라 그림책 13:00~13:50 / 현장접수
3	4	5 휴관	6	7	8 꼬마작가의 연필 16:00~18:00 / 세미나실 꼬마작가의 노트 16:00~18:00 / 프로그램실	9 열려라 그림책 13:00~13:50 / 현장접수 나도 만화가, 너도 만화가 14:00~16:00 길 따라 숲 따라 15:00~17:00
10	11	12 휴관	13	14	15 꼬마작가의 연필 16:00~18:00 / 세미나실 꼬마작가의 노트 16:00~18:00 / 프로그램실	16 열려라 그림책 13:00~13:50 / 현장접수 나도 만화가, 너도 만화가 14:00~16:00 길 따라 숲 따라 15:00~17:00
17	18	19 휴관	20	21	22 꼬마작가의 연필 16:00~18:00 / 세미나실 꼬마작가의 노트 16:00~18:00 / 프로그램실	23 열려라 그림책 13:00~13:50 / 현장접수 나도 만화가, 너도 만화가 14:00~16:00 길 따라 숲 따라 15:00~17:00
24 31	25	26 휴관	27	28	29 꼬마작가의 연필 16:00~18:00 / 세미나실 꼬마작가의 노트 16:00~18:00 / 프로그램실	30 열려라 그림책 13:00~13:50 / 현장접수 나도 만화가, 너도 만화가 14:00~16:00 길 따라 숲 따라 15:00~17:00

★ 어린이작업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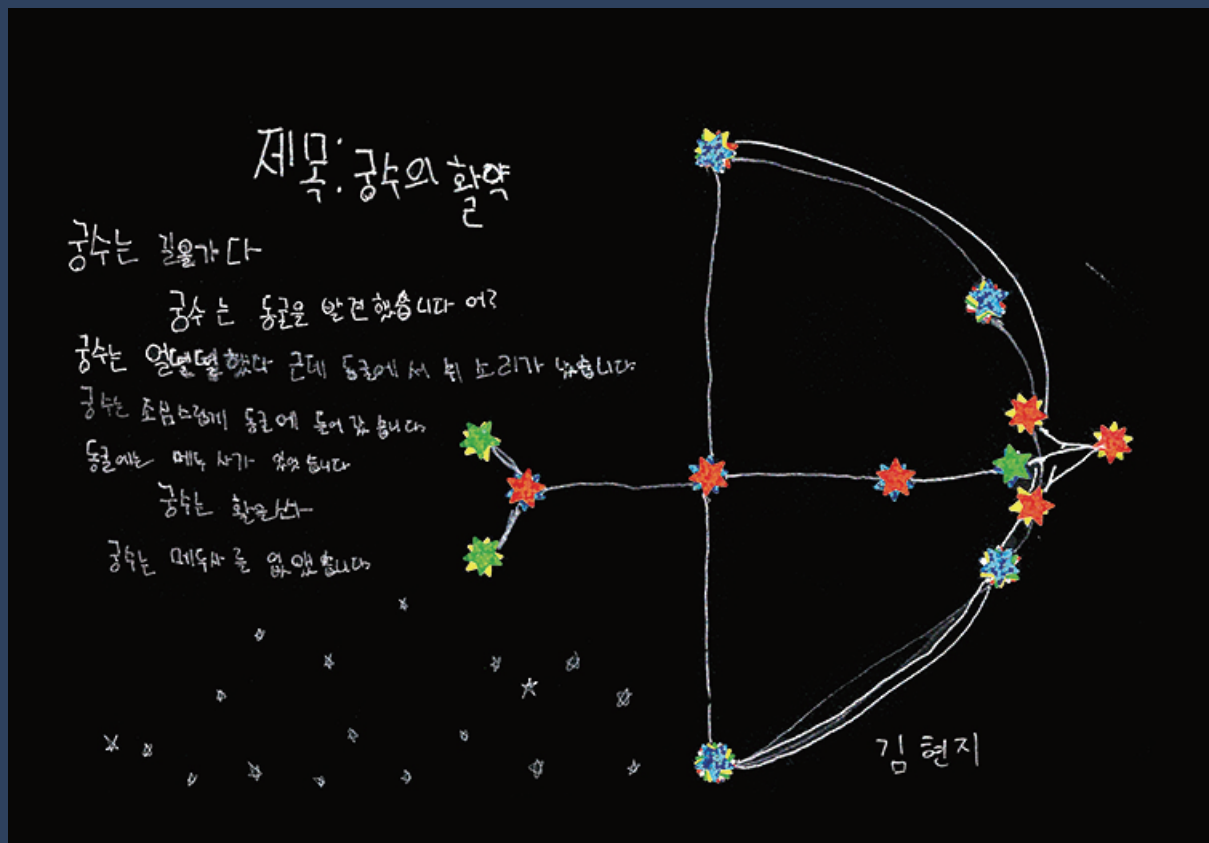
반짝반짝 별자리를 모티브로 한 어린이작가들의 작품입니다. 2019년 제작한 꿈바당 탁상 달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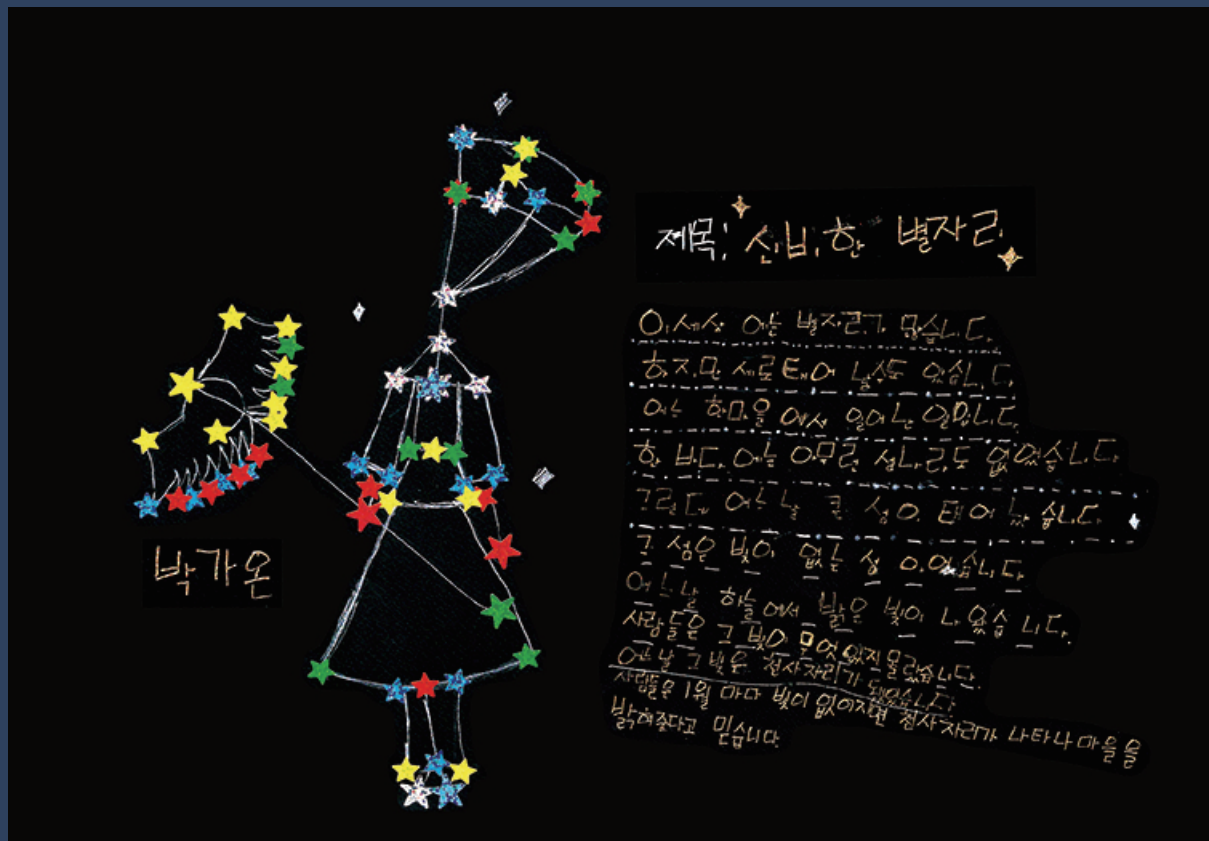
김승현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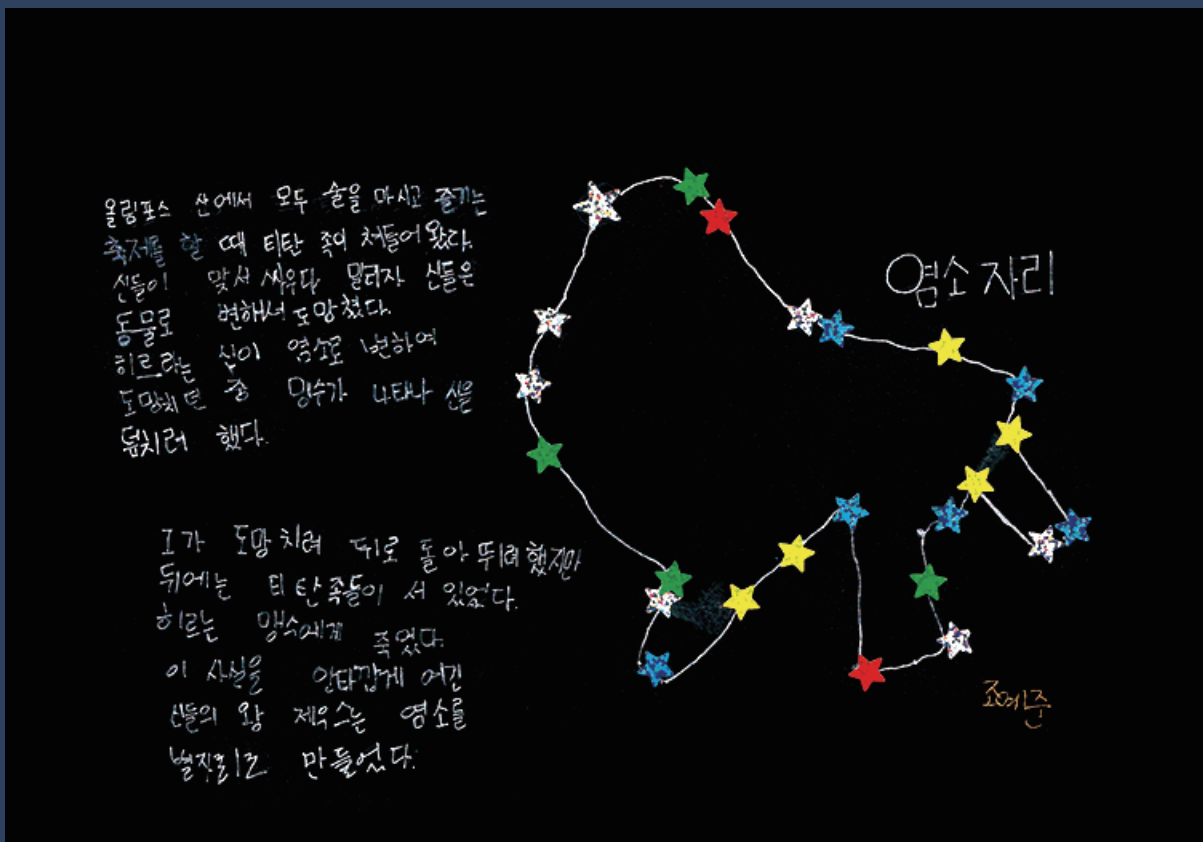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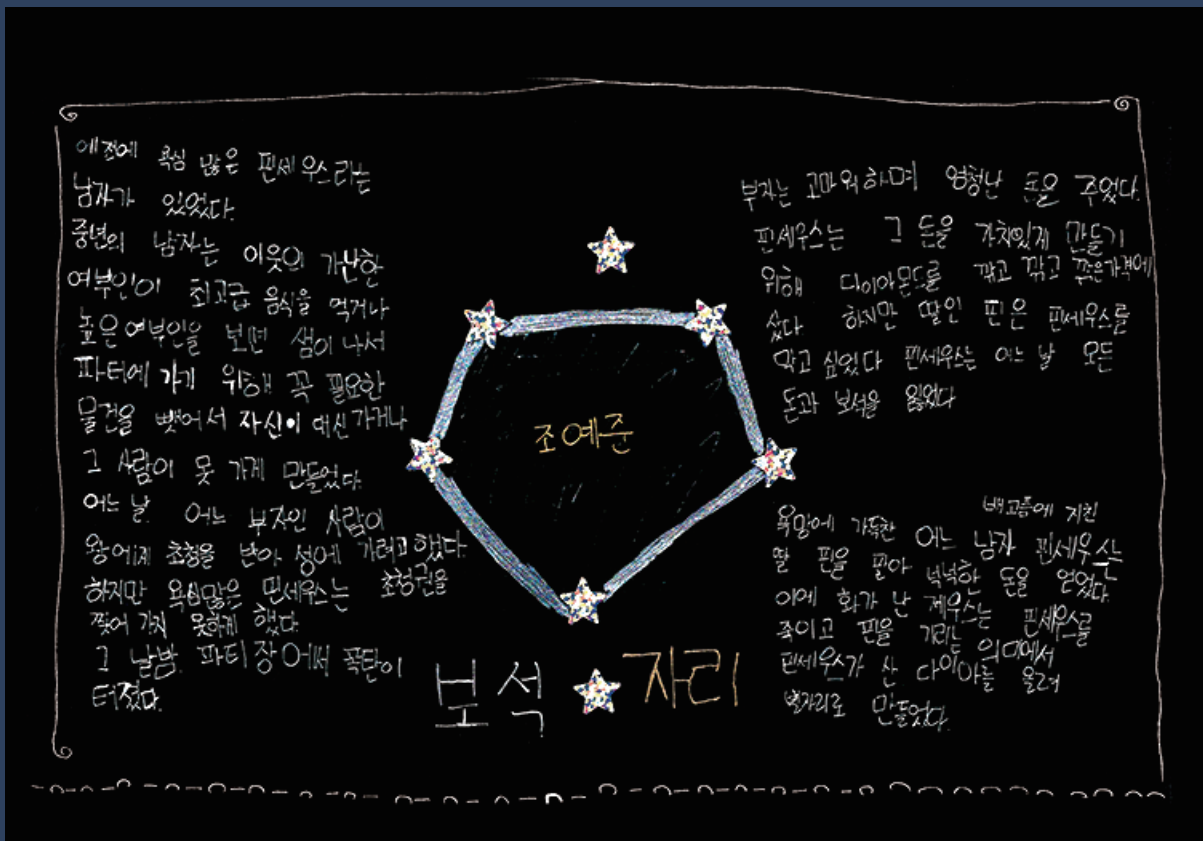
김하얀 어린이



김현지어린이



박가온어린이



조예준 어린이

곰솔이의 탄생이야기 (곰솔이의 탄생)

안녕? 난 곰솔이야

나의 탄생의 전설을 들어볼래?

그럼 난 중국 구 종국 해 너 탄생전설을 들어보렴

난 2016년 처음으로 곰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난 나의 꿈을 잊었기 때문에 곰의 열광까지 잊었다.

그게 뭐였더라 아 별자리와 움직이는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래 나에게 너무나 큰 시간이 찾아와. 말이 생기려고 하던

그때 소행성과 부딪혔는데 난 절망했어. 하지만 그

이름들을 만들어 주었다.

난 나의 시간을 건너다 보니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도 몰라.



별자리 전국 여행
1. 꽃자리 2. 제철자리
3. 천국자리 4. 곰솔이자리

곰솔이가 모르는 곰솔이 이야기
3000년 전 곰솔이는 창(곰솔자리) 자리에서 생명이 천국으로 ~ 가져다왔어.
그러면 곰솔이는 제철(제철자리) 자리에서 가져다왔을지도 몰라.
처음으로 볼 게 된 것의 100%의 지난 강이 될 여섯만다.
별을 비추려고 하는 데를 비추며 제철이 왔다
그때 부터 영혼이 하늘로 올라 간 것을 알았다.

박신비어린이

<염소자리>

옛날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헤라클레스가 너무 무뎠고 힘이
헤라클레스를 염소로 만들 어 버렸습니다. 그걸 안 제우스는 헤라클레스를 너무
원망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염소로 변한 헤라클레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제우스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염소로 변하지 마세요. 제우스님입니다."
당시 헤라클레스를 자식처럼 여겨던 제우스는 하늘에 염소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걸 본 헤라는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제우스를 찾아가 이걸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스를 없애주세요.
그럼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우스는 ~~헤라~~ 한가지
괴로내었습니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죽은 적하고 있으라고
하고 헤라한테 "무엇이든 한다 그랬지 그럼 헤라클레스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했 ~~헤라클레스를 없애주세요.~~ 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저주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뒤로 염소자리가 유명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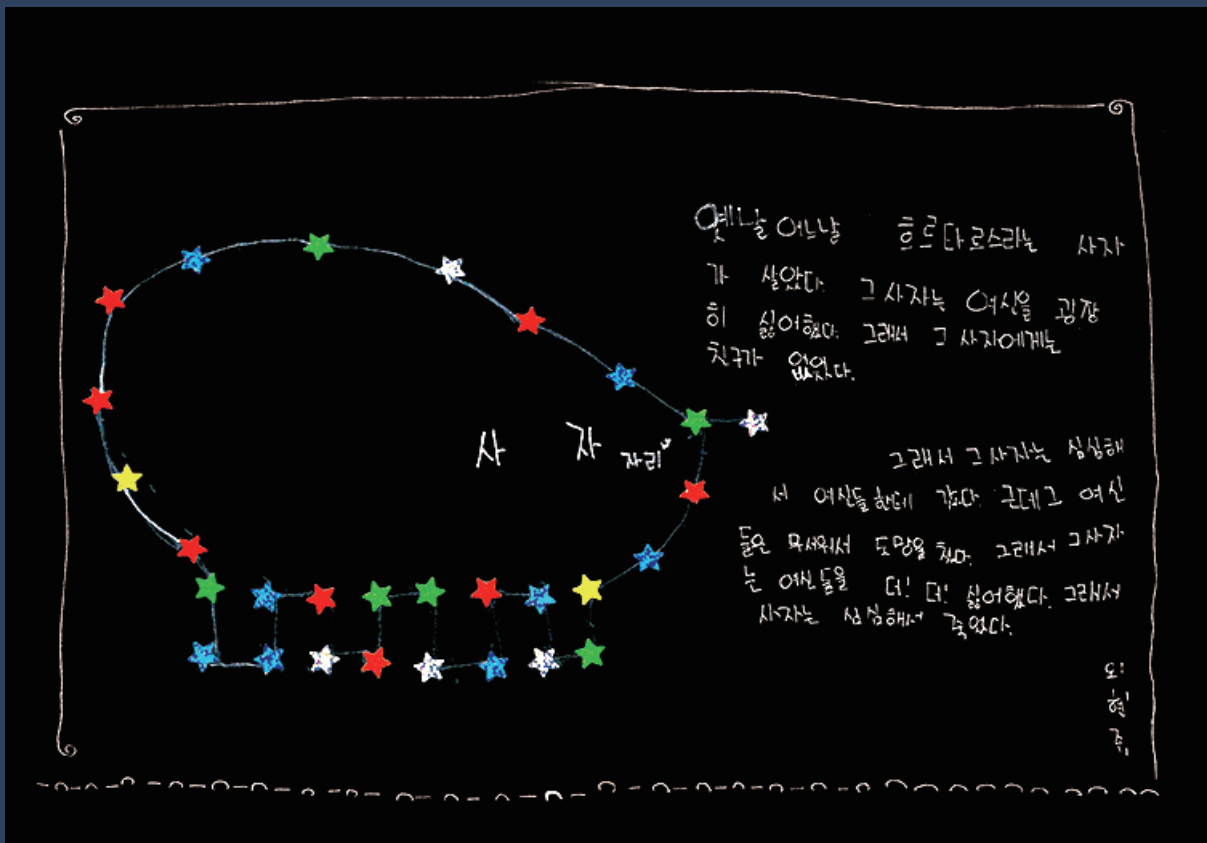


오 채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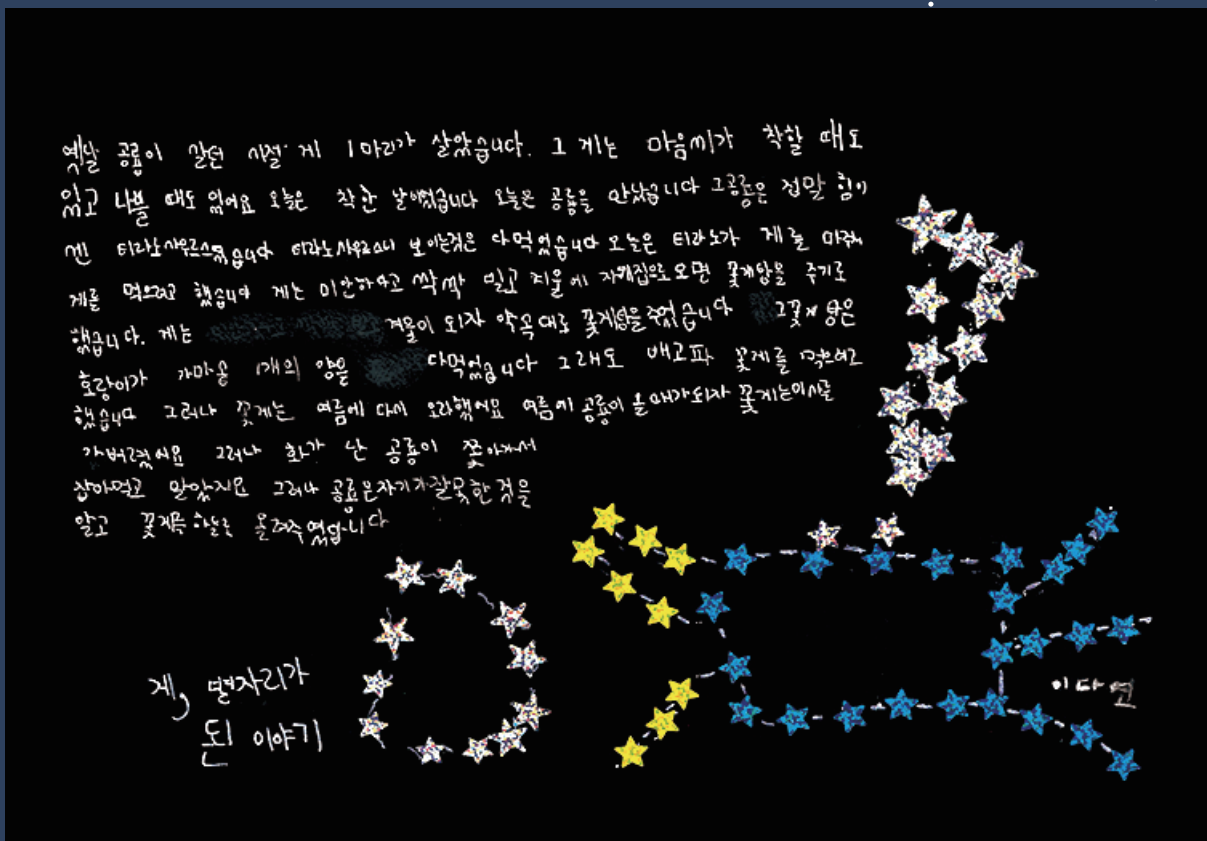
창작 별자리!

연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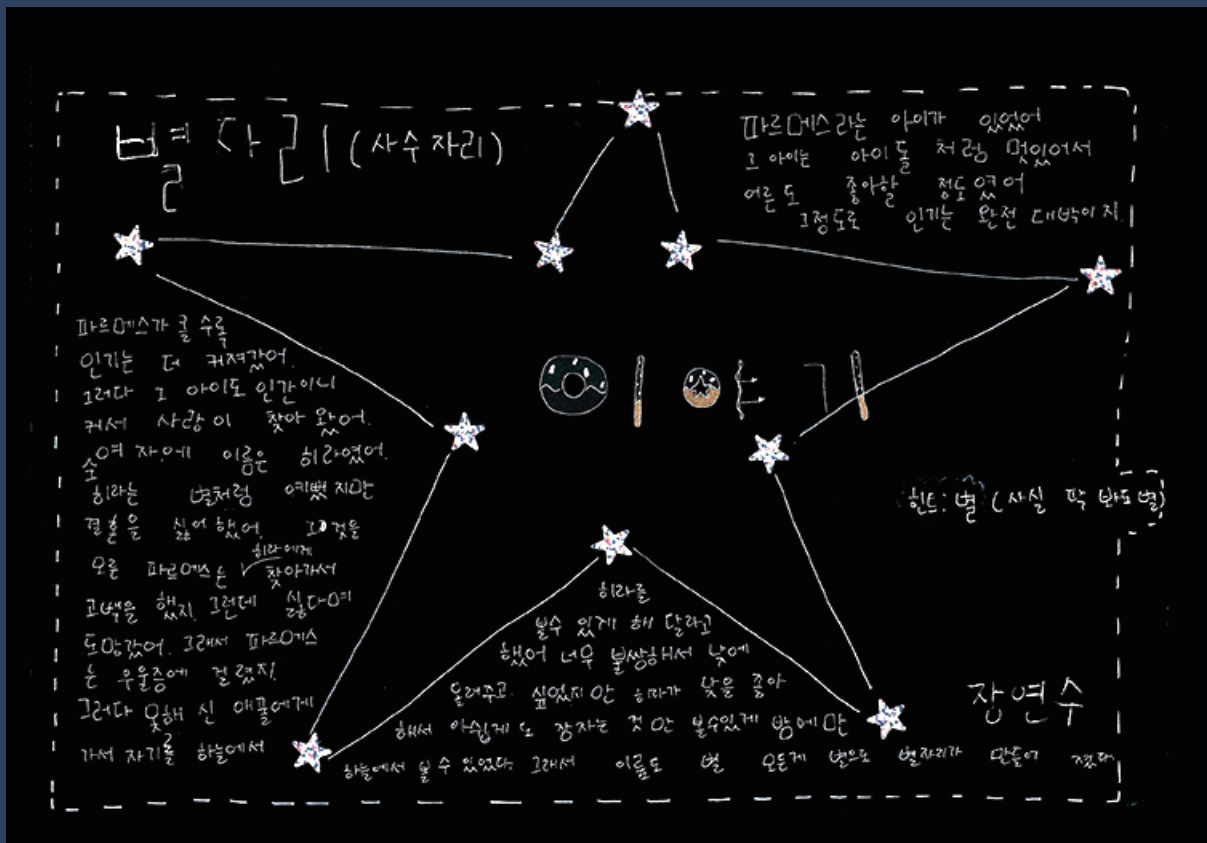
오채은어린이



오현주 어린이



이다연 어린이



장연수어린이



한뼘 서가

“어린이책만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른책도 많아요.” 라는 짧은 대답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책도 있어요!” 하고 붙잡아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듣기 어려운 ‘장 폴 바스키아’의 거대한 화집과 트위터에서 사랑받은 독립서적 ‘피구왕 서영’, ‘무슨만화’가 있는 곳. 한정판으로 발매되는 인도 타라북스의 핸드메이드 그림책이 무심히 꽂혀 있는 곳. 다음 권을 봐야하는데 누군가 반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 없이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과 함께’ 전 권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입니다. [한뼘 서가] 코너에서는 농치면 아쉬운 서가의 한 편을 담았습니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의 벽에는 한국십진분류표가 붙어있습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를 이용해 먼저 10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10가지대분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책이 귀했던 시절에는 가능했습니다. 한국십진분류표는 196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퓨터 분야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분야는 전자공학과 분류표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개척분야가 나온다면 10가지에 집어넣기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처음 시작이니 가장 중요한걸 넣었으리라 생각합니다. 000은 [총류]라고 합니다. 총류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라 낯설지요. 백과사전처럼 복합적인 내용이라 도저히 어느 한 군데 집어넣을 수 없을 때 000에 분류합니다. 그리고 한국십진분류표는 책을 분류하기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010,020 쪽에 도서관, 서점, 출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수록하였습니다.

한뼘 서가 봄 호에서는 책에 대한 애정을 담아 010,020 의 서가를 기웃거려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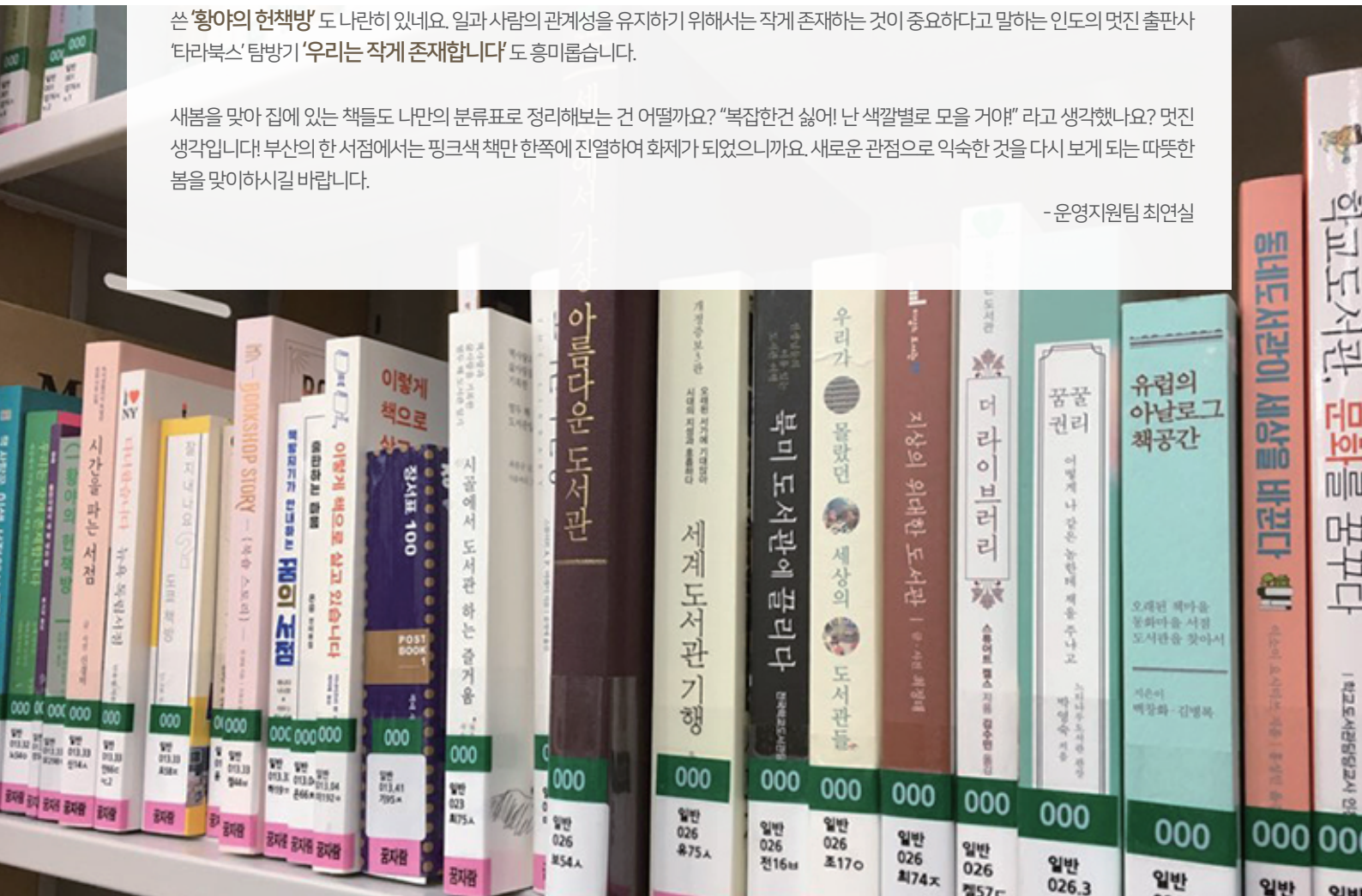
요즘 유행하는 독립서점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서점 붐이 계속된다면 이 칸에 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아 책방들이 문을 닫는다면 이 분야의 책 역시 줄어들겠지요. 생각만 해도 슬픈 일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책들 역시 서점 관련 책들과 한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이라니 들춰볼 수밖에 없겠지요! 작가 ‘기욤 드 로비에’의 멋진 사진으로 세계의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은유 작가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10명을 인터뷰하고 쓴 ‘출판하는 마음’과 믿고 보는 유유출판사의 ‘출판사에 내 책 내는 법’이 함께 꽂혀있습니다. 일본에서 딱 1권의 책만 전시해서 파는 서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주인공 모리오카 요시유키가 쓴 ‘황야의 헌책방’도 만나히 있네요. 일과 사람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인도의 멋진 출판사 ‘타라북스’ 팀방기 ‘우리는 작게 존재합니다’도 흥미롭습니다.

새봄을 맞아 집에 있는 책들도 나만의 분류표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건 싫어! 난 색깔별로 모을 거야!” 라고 생각했나요? 멋진 생각입니다! 부산의 한 서점에서는 핑크색 책만 한쪽에 진열하여 화제가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관점으로 익숙한 것을 다시 보게 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운영지원팀 최연실



시시콜콜뉴스



201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						1 상일장 3.1운동 100주년	2
3	4	5 정기휴관일	6 경칩	7 ^{2.1} 기형도 사망 30주년	8	9	
엄마, 깨진 무릎에 생긴 피딱지 좀 보세요. 까맣고 단단한 것이 꼭 잘 어문 꽃씨 같아요. 한번 만져 보세요. 그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지 자꾸 근질근질해요. 새음이 들려나 봐요 봄날 신형건	10	11	12 정기휴관일	13	14	15	16
17	18	19 정기휴관일	20	21 춘분 2.15	22	23	
24 31	25	26 정기휴관일	27	28	29	30	

4월 프로그램 접수기간 | **11(월)-22(금)**



꿈바당 달력

1,2월 휴식기를 가지고 3월, 2019년 첫 웹진, 봄 호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존의 매달 발행에서 변경되어, 2019년에는 도서관 웹진이 계절마다 발행됩니다.

꿈바당 3월 달력을 볼까요? 신형건 시인의 '봄날'이라는 동시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임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3월 7일은 유고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을 남기고 떠난 기형도 시인의 사망 30주년의 날입니다.

3월 11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과 어린이독서회 접수까지 겹쳐 접속인원이 많아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이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3월의 북큐레이션

2월의 특별 도서전시 '동네책방이 추천합니다 : 미술은 어려우니까'가 끝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3월의 책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1919-2019' 전시는 독립운동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꿈자람책방 입구에서, '그림책은 0세에서 100세까지 보는 책'이라는 타이틀로 그림책 전문 동네책방 '노란우산'이 추천하는 책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전

'마음이 풍풍풍' 그림책 원화 전시전이 도서관 2층 그림책방 앞 복도에서 열렸습니다. 아기데지 풍풍이가 세상을 처음 만나며 마음을 나눠줍니다. 김성은 작가가 글을 쓰고 조미자 작가가 그림을 그린 '마음이 풍풍풍',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를 위한 그림책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3주간 만나봅니다.



견학 소식



3월 4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제주지부 <우리마을 이야기> 현장교육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양민숙 팀장의 안내 하에 도서관 내부와 외부 정원을 둘러보고 견학을 마쳤습니다. 제주의 관광안내사분들이 여행자에게 제주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잘 설명해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비오는 일요일

3월의 어느 일요일, 장마처럼 연신 비가 내립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뛰어오기 전 꿈바당은 빗소리만 들립니다. 처음 문을 열고 정원에 들어오면, 종종 꿩이 후다닥 날아올라 서로 놀라곤 합니다. 고요한 아침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정원을 향한 꿈자람책방의 창가 자리에서는 지금 동백과 목련, 매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심어둔 수국이 이번 해에 개화한다면 5월에는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매 순간이 다른 꿈바당 정원을 느껴보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 워크숍

2월 28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렴교육 및 선서식, 참여자 공동 발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별 담당업무와 본인 소개를 직접 하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었습니다.